

무주군, 감염병 예방 총력

방역전담팀 구성... 1억원 투입 11월까지 단계별 방역활동 추진

무주군이 모기와 파리, 진드기 매개 질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비 1억여 원을 투입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단계별 방역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해빙기를 맞아 3월(1단계)에는 하수구와 대형건물 지하, 정화조 등을 집중 소독하고 4월(2단계)에는 자연하천과 습지, 웅덩이,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숲을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절기로 접어드는 5월부터는 (~11월중, 3단계) 관공지와 민원발생

지역에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방역기간을 135일에서 175일로 지난해보다 40일 연장했으며 지난 19일부터는 유충 서식지인 정화조와 하수구, 저수지, 축사 등 270곳에 유충구제 약을 투입하고 있다. 웅덩이와 페타이어 집하장의 고인 물을 제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이해심 과장은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의 이유로 해충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역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미생물을 이용해 환경 친화적으로 모기유충을 박멸하는 활동을 펼친다"라며 "미생물 유충구제는 유해하지 않은 생물에 대해서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충 1마리 당 성충 모기 500마리의 박멸효과가 있는 유충구제는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 유충단계에서 살포하는 것으로, 월동모기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해빙기 방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우규, 진안군의원 출마선언

전 백운파출소장으로 민주당 가선거구 도전

이우규(53·사진) 전 백운파출소장은 22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13 지방선거 진안군 가선거구(진안읍, 백운, 마령, 성수면)에 군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우규 전 소장은 "진안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의 감명을 이루기 위해 어제의 다른 새로운 발상으로 정직과 성실, 열정을 다해 '행복한 진안, 살고 싶은 진안'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군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원이 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향

후 진안의 발전과정과 행정력 지원에서 어떤 군민도 소외받지 않고 진안에서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행정을 펼치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고 출마의지를 표명했다.

이 전 소장은 성수면 좌포리가 고향으로 성수초등학교, 전주서중학교, 신흥고, 전북대를 졸업하고,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정보계장 등 25년 경찰공무원을 마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해 놓고 있다.

이 전 소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쉽고 편한 길인 정년을 7년여 남겨두고 지방의원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진안의 비전과 군민의 어두운 곳을 충분히 체험했기에 더 늦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

무주군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이 22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참여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강관리와 안전관련 교육을 듣고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성취감을 높이고 건강 및 대인관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노인안전예방(취약노인지원·시설 안전관리, 불편시설 모니터링)과 상담안내(학대예방, 인권지킴이 활동, 대중교통 안내 등), 학습지도(체육활동 제외), 문화예술(음악회, 공연)에 종사하게 되며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활동비(월 10시간 내외 / 1회 최대 2~3시간)가 지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선별검사 후 의심자 정밀진단... 치매 확진시 치료관리비 연 36만원 이내 지원

진안군 22일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기능저하자, 치매의심자 6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마음사랑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2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치매검진 대상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집안자, 치매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등이다.

치매조기검진은 어르신들의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력, 언어능력, 구성능력, 판단력 등 총 19문항의 선별검사를 실시한 다음 의심자는 소독 기준에 준하여 협안병원에 의뢰하고

정밀검진(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치매로 확진 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도 연36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치매는 조기발견과 빠른 치료가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한다.

군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부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춰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고 치매환자·가족·이웃

에게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마을 출장으로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를 홍보하고 있으며, 마을순회 치매예방교육, 헤어링 가족교실, 인지강화교실운영 치매안심(전문가)도우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방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도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자는 8,304명(78.28%)이었으며 이중 170명을 조기검진하여 290명이 치매로 확진 받은 바 있으며 '18년 2월말 현재 치매등록환자는 1,041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오후 6~8시까지... 여권·주민등록 등 5개 업무 9종 처리

진안군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부터 8시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와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여권 발급, 지적

제증명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부동산 실거래 접수 등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수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는 "군민편의 증대시키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수요에 대응하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교량·터널 정기점검

장수군은 2018년 상반기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당계터널, 가재터널, 장안터널, 연화교로 총 4개소이며 23일부터 4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되며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정기점검 후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1일까지 신청

장수군, 자부담 2만원 포함 12만원... 전국서 연말까지 사용 가능

장수군은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업인 여성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생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2만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가능 나이는 만25세에서 만 70세까지다.

또한 결혼한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는 만 20세 이상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 젊은 농촌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종합스포츠센터,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등 25개 사용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은 작년 807명에게 총 8,07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그에 힘입어 올해는 총 1,100명에게 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3월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생생카드는 여성농업인들이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많은 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장수군의 여성농업인들이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실시

장수군은 2018 민방위의 날을 맞아 해 전국단위 화재대피훈련을 21일 오후 2시부터 2시30분까지 진행했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화재대피훈련을 진행했고 한누리시네마에서는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훈련과 연계하여 진행했고 무진장소방서, 장수119안전센터, 장수경찰서, 장수어린이집, 장수여성지원 민방위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오후 2시 화재경보 사이렌과

함께 화재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20여분간 진행됐다. 한누리전당 자위소방대는 한누리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주민들과 시설 이용자들을 건물 밖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대피 후에는 장수119안전센터의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최용득 군수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대피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능력을 극대화해 안전한 장수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마령 호박고구마 영농조합법인 무안군 자색고구마 선진지 견학

진안군 마령호박고구마 영농조합법인(대표 황인준) 회원 80여명은 22일 이승호 마령면장, 김복희 마령면 농민상담소장과 함께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자색고구마, 풀고구마 주산지로 알려진 전남 무안군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견학은 마령 호박고구마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무안 바이오에너지 작물 연구소와 무안 황도평포구마 클러스터 사업단 등을 방문해 재배기술 습득과 가공품 종류, 가공과정 등을 익혀 마령 호박고구마 영농조합법인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